

부산남항 수변경관 현황분석 연구

최혜린* · 강영훈** · † 이한석

*한국해양대학교 박사과정,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과학기술연구소 산학연구교수,
†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건축·에너지자원공학부 교수

요약 : 항만경관은 항만의 특징을 드러내는 매력적인 요소로서 항만재개발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고있다. 최근에는 항만재개발사업에 있어 항만경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항만 고유의 특색을 살린 수변경관계획 수립을 통해 수변경관을 개선함으로써 사람들이 모이는 매력적인 항만으로 변모하고자 한다. 도심의 친수공간으로서 잠재력이 큰 부산남항은 다양한 수변공간계획 및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관련 기존 항만개발사업은 기능성과 경제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수변경관에 대한 고려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산남항의 경관을 개선하고 매력적인 항만으로 변모하기 위한 수변경관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 기초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부산남항을 7개 지구로 구분하고 각 지구의 수변경관(색채, 랜드마크, 야간경관)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구별 수변경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제시하였다.

핵심용어 : 부산남항, 수변경관계획, 색채, 랜드마크, 야간경관, 현황조사

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연구배경

- 부산남항은 항만 내 녹지 및 공공공간 부족, 불균형하고 위험한 항만환경, 항만경관과 도시경관의 부조화 등의 문제로 인해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시설 노후화 및 주요 산업의 쇠퇴로 인해 도시 수변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함
- 부산남항은 원도심 및 북항에 접하여 도심의 친수공간으로서 잠재력이 크며 다양한 수변공간계획 및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주변 도시와 연계하여 도시 경관의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음
- 남항 관련 기존 항만개발사업은 기능성과 경제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수변공간 및 수변경관, 시민과 관광객의 수변활동에 대한 고려가 매우 부족한 실정임
- 시민들의 친수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친수공간이자 매력 있는 도심 수변공간으로 남항을 재정조각기 위해서는 수변공간·수변경관·수변활동을 고려한 종합적인 수변공간계획 수립이 필요함

연구목적

- 부산남항의 도시경관 및 자연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수변경관을 창출
- 항만의 색채경관·랜드마크·야간경관을 새롭게 계획
- 매력 있는 항만으로 재정조각기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



2 부산남항 수변경관 현황조사

2.1 조사개요

- 일시**
 - 색채 : 22.06.22(수) 14:00-17:00 / 22.07.14(수) 14:00-17:30
 - 랜드마크 : 22.06.27(화) 14:00-17:30 / 22.07.15(금) 14:00-18:00
 - 야간경관 : 22.06.22(수) 20:00-22:30 / 22.07.15(금) 20:00-22:30 / 22.08.06(토) 20:00-23:00
- 조사 목적 및 대상**
 - (목적) : 남항(존별) 수변경관(색채·랜드마크·야간경관) 현황을 파악 후 분석하여 남항정체성계획을 수립하고자 조사를 수행
 - (대상) : 부산남항 항만구역(수변공간과 수역)
- 조사내용** : 남항 수변경관(색채·랜드마크·야간경관) 현황
- 조사방법** : 걷거나 차량지용탐색기를 활용하여 사진촬영(DSLR, 휴대용) 및 메모를 통해 현장조사 수행
- 결과분석**
 - 색채 : 촬영한 사진을 토대로 색채추출 프로그램인 'Just Color Picker'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색채를 추출하고 추출된 색채를 바탕으로 현황 분석
 - 랜드마크 : 촬영한 사진 및 메모를 토대로 주요 랜드마크를 지도에 표시하고 현황 분석
 - 야간경관 : 촬영한 사진 및 메모를 토대로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개선사항을 도출



1. 서론

1.2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내용


- 공간적 범위 : 부산남항 항만구역(수변공간과 수역)
- 내용적 범위 : 항만구역 수변경관 현황조사
 - 색채
 - 랜드마크
 - 야간경관

연구방법

- 부산남항 수변지역을 공간적 특성에 따라 7개 존(zone)으로 구분

존	존도
I존	송도해상케이블카-남부안원역
II존	광안리역에서 광안대교(남항)역
III존	광안대교-부산대교
IV존	부산대교-부산대교 남
V존	부산대교-부산대교 북
VI존	부산대교-남항대교
VII존	남항대교-부산대교(남항역)

- 각 존별 수변경관(색채·랜드마크·야간경관) 현황 조사
- 조사결과를 토대로 존별 수변경관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 제시



2 부산남항 수변경관 현황조사

2.2 현황분석

기준 : 송도해상케이블카-남부안원역

- BLUE/GREEN(자연), BROWN/GRAY(민중) 색채로 경관 조성
- 많은 연초를 차지하는 허늘과 바다의 BLUE계열 색채와 상지의 GREEN계열 색채가 서로 어울리며 색채경관을 주도하고 있지만 색채 사용에 대한 기본계획이 없어 여러 색채가 포함됨이 산발함
- 랜드마크 : 남항대교, 남항정교, 송도해상케이블카, 스포츠광장
- 기존 랜드마크의 환경 정의와 남항의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랜드마크 조성 필요
- 야간경관은 도시구역인 고령아파트 및 산 굴착 부대의 생활조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변 및 수면은 도시구역의 생활조광보다 매우 어둡고 일부 구간은 침침함
- 다양한 야간경관 및 매력적인 수변경관 조성을 위해 수변부 조광계획이 필요함



† 교신저자 : 종신회원, hans@kmou.ac.kr
* 정회원, hrchoi@g.kmou.ac.kr
** 종신회원, hun0707@kmou.ac.kr

2 부산남항 수변경관 현황조사

2.2 현황분석



기준 : 남부민들머리~충무동(백사당)

- BLUE-GREEN(자연), BROWN-GREY(인공) 색채로 경관 형성
- 수변의 녹지가 부족하여 산지의 녹색계열 색채가 연속되지 못하고 건물과 선박의 무질서한 색채로 인해 수변 색채경관의 질이 낮은 상태
- 랜드마크 : 남부민들머리(영도계), 남동항고 충무여시장, 물양장 및 선박
- 남부민들머리(영도계) 충무여시장의 경우 야간에도 랜드마크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 필요함
- 야간경관을 도시구역인 고층아파트 및 산 중턱 주택의 생활조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변 및 수변은 도시구역의 생활조명보다 매우 어둡고 일부 구간은 침침함
- 다양한 야간경관 및 매력적인 수변경관 조성을 위해 별도의 조명계획이 필요함

색채 현황사진

랜드마크

야간경관 현황사진



2 부산남항 수변경관 현황조사

2.2 현황분석



V 존 : 우리조선~이스터우링

- BLUE-GREEN(자연), WHITE-GREY-BLUE-BROWN(인공) 색채로 경관 형성
- 수변 일대의 녹지 부족으로 GREEN 계열 색채가 없으며 고층건물군(WHITE, 산골시들머리(BROWN), 크레인 및 정안시들머리 RED YELLOW 등 운석계열)이 색채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음
- 랜드마크 : 크레인, 선박, 황소조선소
- 색채개선 등 경관정복을 통해 영남의 랜드마크로 활용 및 항만경관 개선 필요
- 수변에는 황소조선소가 들어서 있어 야간에도 랜드마크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 필요함
- 매력적인 야간경관 조성 및 수변경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명계획이 필요함

색채 현황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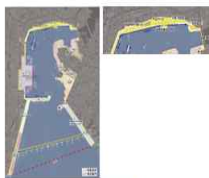
랜드마크

야간경관 현황사진



2 부산남항 수변경관 현황조사

2.2 현황분석



기준 : 충무동(백사당)~영도대교

- BLUE-GREEN(자연), WHITE-GREY-BLUE(인공) 색채로 경관 형성
- 수변의 일부 건물은 새로운 재도색 색채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건물들과 색채조화를 이루지 못하며 수변의 건물 시선용, 야간 등 선박, 항만시설물의 색채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음
- 랜드마크 : 자갈치시장, 영도대교, 남동 유람선안정장, 유래리광장
- 남동항 상항고 아파트는 다양한 형태의 랜드마크를 연계한 활용계획 필요
- 남동항에서 가장 정비가 잘 된 구역이지만 일부 구간에서 조명이 끊어지고 있음
- 현행에서 야간조명의 정비로 통해 아름다운 야간경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색채 현황사진

랜드마크

야간경관 현황사진



2 부산남항 수변경관 현황조사

2.2 현황분석



기준 : 이스터우링~남동항(들머리)

- BLUE-GREEN(자연), WHITE-GREY-BLUE(인공) 색채로 경관 형성
- 수변 일대의 녹지 부족으로 GREEN 계열 색채가 없으며 고층건물군(WHITE), 주택(다양한 운석), 산골시들머리(BROWN), 영도계 및 포항(GREY)이 색채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음
- 랜드마크 : 영도항(들머리), 남동계제 및 자갈밭, 국제선승용승선터
- 랜드마크로 활용하기 위해 전체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함
- 배후 주거지의 생활조명이 대부분이며 수변에는 야간조명이 거의 없어 어둡고 침침함
- 매력적인 야간경관 조성 및 수변경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명계획이 필요함

색채 현황사진

랜드마크

야간경관 현황사진



2 부산남항 수변경관 현황조사

2.2 현황분석



기준 : 영도대교~우리조선

- BLUE-GREEN(자연), WHITE-GREY-BLUE-BROWN(인공) 색채로 경관 형성
- 강정마을(마을)사업으로 색채경관이 비교적 개선되어 있으나 우리조선소와 노후건물군은 대부분 붉은 재도의 어두운 BROWN 계열 색채를 가쳐 주변 색채경관을 저해하고 있음
- 랜드마크 : 강정마을마을을 재가계(신박) 대부분 매력적, 영도대교
- 랜드마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환경 조성 필요
- 수변의 조명이 고층아파트 배후 주거지의 생활조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다른 구역에 비해 배후 주거지의 생활조명이 많이 전체적으로 어둡음
- 어두운 수변경관에서 매력적인 야간 수변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수변경관 조명계획이 필요함

색채 현황사진

랜드마크

야간경관 현황사진



2 부산남항 수변경관 현황조사

2.2 현황분석



기준 : 남동항(들머리)~프릿지수면(미유원)

- BLUE-GREEN(자연), WHITE-GREY-BLUE(인공) 색채로 경관 형성
- 배후 주거지의 고층 아파트군과 주택가의 다양한 물적이 있어 붉은 색채를 형성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음
- 랜드마크 : 홍동대(홍동방파제), 남동대교, 브릿지수면(미유원)
- 다양한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주요 조망포인트 야간에도 랜드마크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 필요함
- 배후 주거지의 생활조명이 대부분이며 수변에는 야간조명이 거의 없어 어둡고 침침함
- 매력적인 야간경관 조성 및 수변경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명계획이 필요함

색채 현황사진

랜드마크

야간경관 현황사진



2 부산남항 수변경관 현황조사

2.2 현황분석

기타 : 교항/남항대교 - 영도대교 야간경관



남항대교

- 남항대교는 남항 어디에서나 볼 수 있으며 대표적인 랜드마크로서 남항 야간경관을 형성하고 있음
- 2015년 경관주요 개선사업을 통해 주황로 측면부분은 기존 LED 라인 빛을 활용하 중양부에 프린트용 주야 리플링 및 거울연출을
- 상부 산책로에는 가로등이 연속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통행하는 차량의 빛으로 환하게 밝음
- 산책로 일부에는 라이팅을 흰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음

영도대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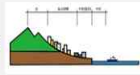
- 영도대교는 교항 자체의 경관조경을 접하며 상부에 가로등 측면에는 통행하는 선박을 위한 신호등(물안개 초록색)이 설치되어 있음
- 인근의 부산대교와 부산항대교의 화려한 경관조경과 대비되어 비교적 아담고 친화적인 경관조경을 하고 있음
- 교항의 특성을 살려 교각과 상반 측면의 라이팅을 조경을 통해 야간 랜드마크 활용될 수 있음
- 영도대교 상부는 가로등이 연속적으로 설치되어 보행에 불편이 없음

2 부산남항 수변경관 현황조사

2.3 소결

야간경관

- 현황 - 남항의 야간경관구조는 하늘-산-도시지역-수변(항만)-수면으로 구성 도시구획과 그렇지 않은 구역사이에 어두움의 차이가 분명하게 구분됨 배후지역의 생활조경이 대부분이며, 노점상 및 상업시설의 간판 조형이 눈부심을 야기함 교항 등 일부 랜드마크의 야간조형이 남항의 야간경관을 주도하고 있음
- 문제점 - 야간경관의 질을 결정하는 지역인 수변공간에 야간조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대체로 어두운 생활조경과 주변 상업지역 조형이 조화롭지 못 함
- 개선대책 - 다양한 야간경관 연출 및 매력적인 수변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제한된 수변부 경계를 보여주는 조명계획과 수면에 반사되는 빛을 활용한 조명계획이 필요 수면에 입사한 건물(상업시설) 및 주변 일대의 고층건물의 라이팅을 통해 랜드마크 활용 야간 수변공간 활성화를 위한 계획 필요(이동식 조형물, 조명장치, 조명 LED 등)



(남항 야간경관구조)



(남항 야간경관)

2 부산남항 수변경관 현황조사

2.3 소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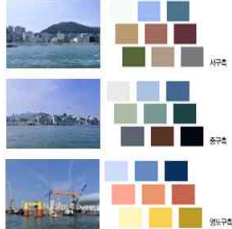
색채

- 현황 - 자연색채: 바다, 하늘의 BLUE 계열, 배후 산지의 GREEN 계열(명만 앞대 녹지부족) 인공색채: 노후화된 건물, 시설물의 BROWN 계열, 항만 및 수변 일대 건물은 WHITE, GREY 계열
- 문제점 - 수변지역 BROWN과 GREY 계열 색채로 남고 오래된 분위기, 자연색채-인공색채, 인공색채-인공색채 간의 부조화
- 개선대책 - 수변의 특성을 살린 바다와 주변이 조화될 수 있는 질서감을 주는 색채계획 필요

자연색채



인공색채



3 결론

결론

- 현재 남항의 수변경관은 전체적으로 낮고 집체된 분위기를 형성하며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함
- 색채는 BLUE*GREEN*GREY, WHITE*BROWN*GREY(인공색채)로 경관이 형성되어 있으며 색채가 조화되지 못하고 신기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음 → 수변 특성을 살린 색채계획을 통해 조화와 조화로운 수변경관을 형성해야 함
- 랜드마크의 경우 인공적으로 저층차량, 관공(영도대교), 남항대교 등이 있으며 일부 구역의 랜드마크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체계가 불모함 → 남항의 새로운 상징적 요소가 될 수 있는 랜드마크 발굴이 필요하며 (기니 놀이 공간, 형태적 과잉성, 역사적 대상, 예술적 특징성 등을 고려) 남항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다양한 형태의 랜드마크를 연계한 활용계획이 필요함
- 야간경관 연출 비후지역의 생활조형이 대부분이며 야간경관의 질을 결정하는 지역인 수변공간에 야간조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대체로 어두운 다양한 야간경관 연출 및 매력적인 수변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제한된 수변부 경계를 보여주는 조명계획과 수면에 반사되는 빛을 활용한 조명계획과 야간 수변공간 활성화를 위한 계획 필요(이동식 조형물, 조명장치, 조명 LED 등)
- 남항이 도시경관 및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변경관을 활성화하도록 수변공간계획(색채, 랜드마크, 야간경관) 수립 필요

연구과제

- 수변공간(수변경관)수변활용을 유도 위한 남항 재구조 계획안 수립
- 부산남항이 수변 도시경관 및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경관을 활성화하도록 형태의 체계적인, 랜드마크, 야간경관을 세분화 계획함으로써 체계적인 경관으로 재구조
- 수변공간계획(색채)-랜드마크야간경관과 수변공간계획(인공색채 및 녹지)을 연계하여 개선된 경관을 바탕으로 기존의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하고 친수공간으로 재구조
- 수변공간계획(색채)-랜드마크야간경관과 수변공간계획을 연계하여 수변공간 활성화를 도모하여 다양한 활용을 할 수 있는 친화적인 공간으로 재구조

2 부산남항 수변경관 현황조사

2.3 소결

랜드마크

- 현황 - 저층차량, 관공(영도대교), 수변 및 가까운 도심의 고층건물, 남항대교, 영도대교, 동대 및 방파제, 조선소 크레인 등
- 문제점 - 건축물형 및 구조물형이 대부분, 노후되고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활용도가 떨어짐 남항의 이미지나 상징성을 드러내고 있는 랜드마크가 거의 없음
- 개선대책 - 기존 랜드마크 정비 및 남항의 이미지를 시각화하고 상징적인 랜드마크 조성 필요

